

Status of packing food market in Spain

스페인 포장식품시장 현황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자료 제공

I. 스페인 포장식품시장 현황

스페인 포장식품시장은 최근 5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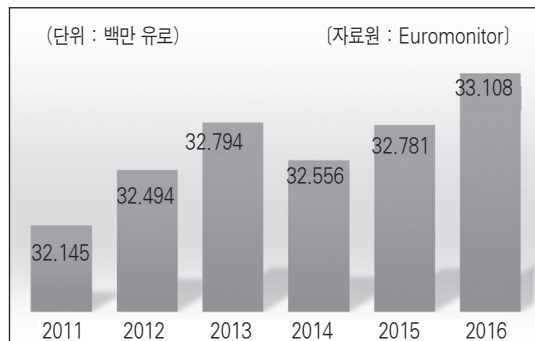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331억 유로로, 전년대비 1%, 2011년 대비 3% 증가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의 대거 유입, 1인 가정 증가 등으로 각종 포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총 포장식품 판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우유, 요구르트 등과 같은 유제품으로 2016년 전체 시장의 25.3%를 차지했으며, 빵류(13.9%), 가공육류·해산물(13.7%), 스낵류(7.5%)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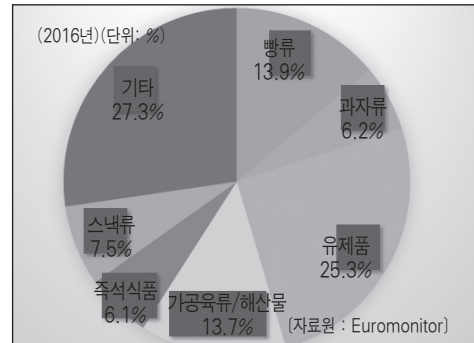
2011~2016년 판매액 최대 증가 품목은 쌀·파스타·면류(+20.4%), 식용유(+19.1%), 스낵류(+17.6%)이고, 2011~2016년 판매액 최대 하락 품목은 이유식(-18.2%), 시리얼(-9.2%), 빵류(-6.5%) 등이다.

2016년 스페인 포장식품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사 중 Mercadona(1위), Carrefour(2위),

[그림 1] 스페인 포장식품 시장 추이



[그림 2] 스페인 주요 품목별 포장식품 판매 비중



[표 1] 스페인 포장식품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2016년)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기업명	분야	점유율(%)
1	Mercadona SA	유통, PB브랜드	11.9
2	Centros Comerciales Carrefour SA	유통, PB브랜드	6.1
3	Danone SA	유제품	3.8
4	Nestle Espana	시리얼, 음료, 유제품 등	2.1
5	SAUnilever Espana SA	소스, 음료, 수프 등	2.04
6	Pepsico Foods AIE	음료, 스낵 등	2.01
7	Dia SA	유통, PB브랜드	1.9
8	Eroski Group	유통, PB브랜드	1.6
9	Capsa	유제품, 이유식	1.58
10	Kraft Foods Espana SA	소스, 가공식품 등	1.4

[자료원 : Euromonitor]

Dia(7위), Eroski(8위) 등의 4개 기업은 전국에 다수의 슈퍼마켓 또는 대형마트 체인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이다. Danone(3위), Nestle(4위), Unilever(5위), Pepsico(6위), Kraft(10위) 등 CAPSA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II. 식품용 포장용기 수출입 추이

1. 플라스틱 포장용기

[표 2] 스페인 국가별 플라스틱 포장용기 수출입 추이(HS Code 3923)

(단위 : 천 유로)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프랑스	226,882.7	207,451.7	219,783.3	208,710.2	216,360.9	219,382.2
이탈리아	46,735.2	174,759.5	51,258.4	186,736.3	51,799.7	194,878.0
독일	46,446.8	149,132.7	59,993.8	129,962.9	55,552.2	126,839.6
포르투갈	130,632.6	89,711.8	117,936.7	89,433.2	116,788.8	97,330.8
중국	2,847.6	51,071.9	6,110.5	59,914.3	3,308.0	67,959.3
영국	62,108.4	39,982.6	72,521.5	47,627.9	70,030.6	47,522.8
네덜란드	31,842.7	30,880.1	37,549.3	34,857.0	36,087.2	42,779.8
오스트리아	1,646.2	21,176.4	1,955.5	23,245.8	1,615.5	25,153.4
벨기에	20,881.0	22,352.1	20,970.2	29,914.6	25,500.2	23,963.4
폴란드	12,614.1	14,710.6	16,792.8	15,432.5	13,146.7	18,317.9
...						
한국	445.6	2,635.7	458.9	3,382.9	1,163.4	6,111.9
총수입	879,099.6	938,475.9	949,453.4	981,445.8	972,519.8	1,036,113.2

[자료원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Datacomex)]

[표 3] 스페인 국가별 유리병 수출입 추이(HS Code 701090) (단위 : 천 유로)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포르투갈	85,097.1	201,236.3	86,568.2	220,008.2	98,606.9	237,683.2
프랑스	105,536.9	38,511.3	118,506.2	43,152.6	120,810.7	52,458.3
독일	1,296.0	32,369.7	1,224.9	36,786.1	1,646.3	44,119.3
이탈리아	15,637.0	32,608.4	10,448.4	34,251.3	12,842.4	38,832.2
중국	7.9	8,362.7	36.4	8,376.5	35.3	11,376.2
아랍에미리트	111.5	4,951.3	185.7	4,915.1	94.1	5,926.6
인도	36.2	3,291.9	24.9	5,396.9	83.2	5,577.6
폴란드	6,909.7	1,788.1	8,788.6	2,848.0	8,300.3	4,625.8
오스트리아	151.1	3,378.6	74.5	3,397.6	128.9	3,760.2
벨기에	3,256.1	1,642.8	9,224.1	2,284.2	6,635.4	2,802.1
...						
한국	8.1	485.3	7.2	717.7	2.1	545.5
총수입	267,519.3	341,811.8	288,905.3	374,971.7	301,852.0	422,425.8

(자료원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Datacomex))

근소한 차이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중이며, 최근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스페인의 플라스틱 포장용기(HS Code 3923) 수입액은 전년대비 5.6% 늘어난 10억

[표 4] 스페인 국가별 캔류 수출입 추이(HS Code 761290) (단위 : 천 유로)

국가명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프랑스	11,343.8	43,234.0	13,227.2	41,459.8	15,804.5	42,208.8
독일	5,684.6	13,801.1	5,219.9	23,303.9	5,944.8	12,636.2
영국	2,122.6	9,720.5	2,049.2	10,944.9	2,437.5	11,348.8
이탈리아	3,417.1	7,251.5	5,849.1	8,515.0	9,098.5	8,533.4
네덜란드	5,336.3	569.0	4,226.7	1,325.3	3,982.4	6,751.7
포르투갈	536.2	1,450.5	799.7	3,845.2	1,641.3	6,487.3
모로코	8,022.7	3,889.5	9,192.0	5,180.7	14,338.8	4,752.7
덴마크	1,701.0	5,476.2	493.2	4,221.7	318.4	3,480.1
폴란드	18,680.0	1,680.2	28,722.9	3,940.9	33,609.2	3,055.8
중국	53.0	1,899.1	22.4	1,961.2	2.2	1,967.5
...						
한국	104.4	0.4	149.2	-	119.7	-
총수입	78,158.2	94,563.6	92,342.7	108,910.8	114,866.3	105,304.8

(자료원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Datacomex))

3,611만 유로로, 수출실적(9억 7,252만 유로)과 비교해 약 6,00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대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순으로 EU 역내 수입 비중이 82.5%에 달한다. 같은 해 대한 수입액은 611만 유로로 타 경쟁국에 비해 미미한 수치이나 전년대비 두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유리병

매년 큰 폭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포르투갈로부터의 수입이 편중돼 있다. 2016년 스페인의 유리병(HS Code 701090) 수입액은 전년대비 12.8% 늘어난 4억 2,242만 유로로 수출 실적(3억 185만 유로)과 비교해 약 1억 2,057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대상국은 포르투갈로 전체 수입의 56.2%가 해당 국가에서 이뤄지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 유럽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다. 같은 해, 대한 수입액은 약 55만 유로로 타 경쟁국에 비해 미미하며 전년대비 24% 크게 하락했다.

3. 캔류

현지 캔류 제조활동이 활성화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섰다. 2016년 캔류(HS Code 761290) 수입액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1억 530만 유로로 수출실적(1억 891만 유로)과 비교해 36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대상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과 같은 인근 유럽국가로, EU 역내 수입 비중이 91.8%에 달한다. 같은 해, 대한 수입 실적은 전무하며 오히려 스페인이 한국에 12만 유로를 수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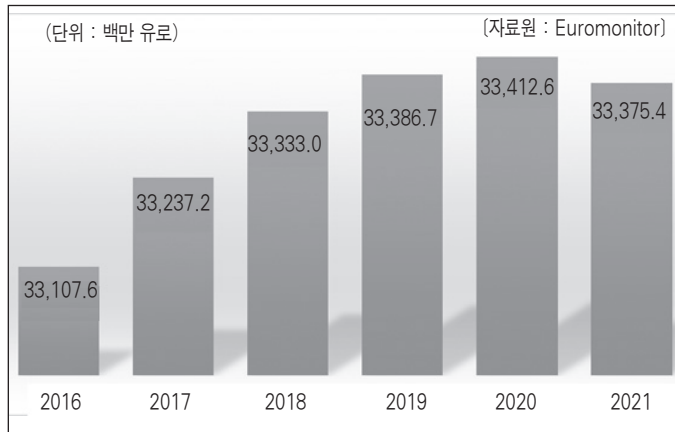
Ⅲ.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스페인 포장식품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각종 식품용 포장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는 현지 포장식품시장이 2016년 331억 유로에서 2020년 334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2021년 판매액 최대 증가품목은 수프(+16.3%), 쌀·파스타·면(+16.0%), 아이스크림·냉동디저트(+10.9%), 스낵(+8.6%), 식용류(+6.5%) 등이고, 2016~2021년 판매액 최대 하락품목은 비스킷·스낵바·과일스낵(-17.9%), 이유식(-16.7%), 가공육류·해산물(-

[그림 3] 스페인 포장식품시장 전망(2016~2021년)



5.5%), 유제품(-5.0%), 시리얼(-1.5%) 등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 포장식품시장에서 PB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해당 분야 공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용유, 가공과일·채소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전체 판매 중 PB브랜드 비중이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브랜드 판매 비중이 높은 주요 포장식품에는 식용유(53.1%), 가공과일·채소(49.4%), 가공육류·해산물(48.8%), 즉석식품(42.7%), 소스·드레싱·향신료(41.0%) 등이다. 다만, PB브랜드 제품은 특성상 매우 저렴한 포장용기만을 사용하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스페인인 아직까지 대부분의 포장용기를 현지 또는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시장 진출 초기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학 스페인 마드리드무역관은 “현지 주요 바이어들과 접촉해본 결과, 유리병이나 캔류는 제품 단가 대비 물류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아시아 지역에서부터의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저렴하므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바이어들의 구매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가격경쟁력 외에 제품의 기술 혁신성이나 안정적인 품질 관리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언급된 향후 판매가 증가할 포장식품 품목을 참고해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방법을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